

초등학생들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실태 및 취학 후의 학업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

정승아
(조선대학교)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State of Pre-school Private Educat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in School

Seung Ah Jung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state of pre-school private educa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nd to identify their relations with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s after they entered into school, by analyzing the data set of 2342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responses of NYPI(Nation Youth Police Institute). The results showed that 71.1% of total responders experienced pre-school private education, and that the starting age of education ranged from 4.76(language) to 5.63(music) years. The most preferred subjects was language(58.1%) while the least one was mathematics(5.5%). Among the family-related 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income and parent's age between the group with pre-school private education and the other. On learning-related factors during 2nd and 3rd school grad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learning behaviors, learning interest,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level. But it turned out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ach subject at school was not affected by the amount of time and the type of pre-school private education.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and proposed with regard to these results.

key words: pre-school private education, academic achievement.

I. 서론

한국의 교육열은 특히 현재 조기 영어교육과 맞물려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넘어서서 취학 전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조기교육의 추세가 취약한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교육이 아닌 사교육 중심으로, 인성발달과 보호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따르는 우려가 있다(우남희, 2004; 서미옥, 2004; 이명순, 2007; 이부미, 이수정, 2010). 통계청(2013)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약 19조원에 이르고, 이중 초등학생에게는 7조 8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이며, 초등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0.9%에 이를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이란 용어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며 대체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대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만(김순남, 이병환, 2014),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기 사교육, 특기교육, 영재교육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박지연, 이숙현, 백진아, 2005), ‘0-6세 사이에 취학 전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명순, 2007)이라는 의미에서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와도 중첩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형태의 사교육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는 과도한 교육열과 이로 인한 사교육의 과열 및 공교육의 파괴, 가계 경제부담, 과중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점의 조기화, 그리고 조기교육의 선행학습화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증가 등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정서적 발달이 시작되는 인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과중한 사교육은 누구보다 아동 자신의 건강한 발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그렇다면 어떤 측면이 그러한지,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교육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초, 중, 고등학교 아동 및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학령 전 연구라도 제한된 집단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취학 전 사교육 실태를 전국규모로 표집된 응답자들의 자료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 취학 전 사교육의 정도나 경험 유무와 관련되는 인구학적 변인들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의 정도나 유무가 취학 후의 학습활동이나 성적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취학 전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된 자료와 인과적 가설모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작업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취학 전 사교육의 실태

비록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현황(김지하, 백일수, 2006), 그리고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효과 크기를 비교한 연구(이필남, 신인수, 장환영, 2017)에 의하면, 각 국가별로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도 대부분 부모(특히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수준, 자녀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이기숙 외, 2002; 이정원, 2009; 홍성우, 2009; 이경선, 김주후, 2010, 서문희, 양미선, 2013).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초, 중, 고 시기의 사교육 실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아기 동안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연구대상을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보고하는 비율의 편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6.5%의 유아가 유아원 이외의 사교육을 경험하며, 사교육의 시작 시기는 평균 34.6개월이라 보고하였다(한유미, 2010). 반면 미취학 아동 895명을 사용한 또 다른 몇몇 연구(김지경, 2004; 이정원, 2009)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이보다 훨씬 낮았지만(35.1%, 48.5%), 회고적 보고에 의한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68.3%, 76.5%, 93-99.3%, 86.7%)의 유아들이 취학 전에 사교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박수진, 2001; 서금택, 2004; 김보림, 2007; 도현심 외 2009; 한수미, 2009, 서문희, 양미선, 2013). 이는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통계청(2013)에서 보고한 초·중·고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 68.8%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취학 전 사교육이 취학 후 미치는 영향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할 때, 이러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과연 아동의 지적발달은 물론이고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인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는 사실 이러한 취학 전 조기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학 후 아동들이 보이는 학업성취나 관련된 발달지표들은 취학 전의 사교육뿐 아니라, 초기의 양육방식, 가정환경, 취학 후의 사교육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가정교육이나 여타 교육경험들을 포함하여 취학 후의

학습과 관련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학 후의 지표들이 과연 취학 전에 받았던 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지어 다각도에 걸쳐 접근한 연구결과들이 누적되고 통합되어야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취학 전 사교육의 영향을 살펴본 몇몇 문헌들은, 우선은 양적으로도 매우 빈약하며, 대부분 취학 후의 사교육 경험이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더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였다는 몇몇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소규모 표집을 사용하여 조기영어교육이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조기교육이 적어도 그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과목의 학업성취도에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김민정, 2009; 이경아, 2003; 류충희, 2008; 서현아 외, 2003). 또한 조기 영어 교육이 민족적 자긍심을 손상하거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조기교육 집단이 자기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다(최지영, 2008) 그러나 유치원 원장의 인식을 통한 간접적 조사연구(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에서는 이러한 조기교육이 학습기술과 자신감 증진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스트레스와 주의산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약화 등의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부미와 이수정(2010)의 연구에서 인용한 현장 교사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조기교육의 효과는 일찍 집단생활을 해 본 경험이나 학습습관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 외에는 없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현 실태에 대한 직접적 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보고를 통한 조사보고 연구라는 제한점이 따른다.

한편, 정서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른 나이의 조기교육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조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동들이 겪는 부담감을 지적한다거나(황혜신, 2003), 조기사교육을 받는 유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고(홍은자 2001), 집중력 부족을 포함하여 소아정신과를 찾는 다양한 병리를 보이는 아동들의 증가가 조기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신의진, 2002; 이부미, 이수정,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사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보다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및 그와 관련된 정서적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기 사교육이 지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시사할 바가 제한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초등학교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까지 7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추적조사 하기 위해 수집중인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단기 종단 연구에서 설계된 설문 문항들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을 따라,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영역을 크게 가정, 교육(학교), 지역사회, 매체, 또래관계로 나누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측면들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해 나가는지를 보기위해 구성되었다(김지경 외 2010).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된 설문자료는 사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전에 개념정의와 하고 제작된 설문지가 아니며,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교육의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본 패널조사 자료의 보호자용 질문지에 “이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래와 같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없다’ 중 하나로 응답한 사례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문항을 읽고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응답자들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즉 특기교육, 혹은 영재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교과목 학습을 포함하여, 음악, 미술, 신체활동이나 기타 취미활동 등이 모두 어느 정도는 중첩된 의미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된 초등학교 1학년 패널에 포함된 2342명의 초등학생들로서, 초등학생 본인 및 그들의 보호자가 응답한 설문응답 결과이다. 이 패널 조사에 포함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09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연보를 근거로 전국 인구를 시도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하여 확정된 표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월-12월 사이에 본 조사를 시행하여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누적된 자료이다.

분석대상이 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비는 남자 51.7%, 여자 48.3%였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의 보호자 응답지에 응답한 사람은 어머니가 88.1%, 아버지가 10.2%였고, 조부모나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모두 1%미만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학생 및 보호자의 가족 및 부모의 구성형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이 된 가정의 구조는 거의 대부분 자녀를 포함한 친부와 친모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자 지역분포

| 지역 | 빈도 | (%) |
|----|------|---------|
| 서울 | 258 | (11.0) |
| 부산 | 131 | (5.6) |
| 대구 | 121 | (5.2) |
| 인천 | 125 | (5.3) |
| 광주 | 124 | (5.3) |
| 대전 | 118 | (5.0) |
| 울산 | 109 | (4.7) |
| 경기 | 394 | (16.8) |
| 강원 | 92 | (3.9) |
| 충북 | 130 | (5.6) |
| 충남 | 114 | (4.9) |
| 전북 | 116 | (5.0) |
| 전남 | 122 | (5.2) |
| 경북 | 151 | (6.4) |
| 경남 | 142 | (6.1) |
| 제주 | 95 | (4.1) |
| 합계 | 2342 | (100.0) |

표 2. 가족형태 및 양육자 형태

| 가족구조 | | 양육자 형태 | |
|-----------------|-------------|--------|-------------|
| 빈도 | (%) | 빈도 | (%) |
| 부, 모, 자녀 | 1999 (85.4) | 생부, 생모 | 2201 (94.0) |
| 홀 부모, 자녀 | 75 (3.2) | 홀 생부 | 48 (2.0) |
| 홀 조부모, 자녀 | 13 (0.6) | 홀 생모 | 68 (2.9) |
| 홀 조부모, 부모, 자녀 | 211 (9.0) | 생부, 계모 | 7 (0.3) |
| 홀 조부모, 홀 부모, 자녀 | 40 (1.7) | 생모, 계부 | 3 (0.1) |
| 기타 | 4 (0.2) | 부모없음 | 15 (0.6) |

2. 연구도구

3차에 걸쳐 조사된 초등학교 1학년 패널용 설문지에 포함된 전체 설문문항의 영역은 크게 개인발달 및 발달환경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발달 영역은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 세부영역으로, 발달환경 영역은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및 활동과 참여, 매체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적 영역의 문항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으로 삼은 세부 영역 및 설문문항의 내용 및 응답방식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본 설문문의 영역 및 문항내용, 응답방식

| 변인 | 문항내용 | 응답방식 |
|---------|--|--|
| 인구학적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 가구 구성 및 보호자 특성: 거주지역(①), 가족구성(*), 가족단위(*), 보호자 출생년도(②), 교육수준(*), 근로여부(*) • 사회경제적 상태: 연간가구소득(③), 보호자의 건강상태, 보호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선다형 응답(*) ① 시/도, 시/군/구, 읍/면 ② --년 ③ 연소득 세후 --만원 |
| 사교육 | ① 이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래와 같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호자응답) ② 초등학교 입학 전 받았던 사교육의 유형(한글, 수학, 영어, | ① 1:있다 2:없다 ② 제시된 표에 표시 ③ 시작연령: 만 - 세 |

| 변인 | 문항내용 | 응답방식 |
|--------|--|---------------|
| | 미술, 음악, 신체활동, 기타/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복지기관, 사설문화센터, 기타) ③ 시작연령, ④ 평균 이용시간 | ④ 주당 - 시간 - 분 |
| 학습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나요? · 학교 숙제는 빠뜨리지 않고 잘 하나요?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물어 보나요? ·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나요? | 4점 척도 |
| 학습습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가치(7문항): (예)나는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숙달목적 지향성(2문항):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행동통제(5문항): (예)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을 마친다 · 학업시간관리(4문항): (예)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 4점 척도 |
| 성적 만족도 | · 학생은 지난 1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과목별로 각각 응답) | 5점 척도* |

* 초등학교의 성적표는 현재 최대 5단계까지 구분되어 배부되며, 본 연구에서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므로 5단계로 평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빈도 및 백분율 등과 같은 기술 통계분석 및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을 위한 t검증과 변량분석,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SPSS 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취학 전 사교육 실태에 관한 기술 통계분석

먼저, 보호자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있다-없다’로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응답자(N=2342)중 71.1%가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사교육의 시작 연령 및 어떤 형태의 사교육을 경험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표 4). 사교육 시작 연령은 국어가 평균 4.76세로 가장 빨랐고, 음악이 5.63세로 가장 늦었다. 한편, 사교육의 내용을 보면 복수의 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과목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어(58.1%)였고, 이어서 미술, 음악, 신체활동, 영어 순이었으며, 수학은 5.5%로 가장 낮은 빈도였다. 반면, 주당 참여시간을 분단위로 환산해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은 음악(179.7분)이었고, 그 뒤를 이어 미술과 신체활동이 모두 150분을 넘었으며, 이에 비해 수학과 국어는 주당 참여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표 4. 취학 전 사교육 형태에 따른 빈도분포

| 과목 (%) | 국어 (58.1) | 수학 (5.5) | 영어 (17.4) | 미술 (23.7) | 음악 (19.1) | 체육 (17.4) | 기타 (5.5) |
|-------------|-------------|-------------|-------------|---------------|---------------|---------------|-------------|
| 시간 (분) | 39.3 (77.4) | 40.4 (72.5) | 82.8 (97.5) | 159.1 (140.6) | 179.7 (138.9) | 155.9 (112.8) | 76.6 (84.5) |
| 시작연령 (표준편차) | 4.76 (1.25) | 5.15 (1.09) | 5.34 (1.09) | 5.35 (1.07) | 5.63 (0.94) | 5.26 (1.27) | 4.93 (1.37) |
| 1 | 73 (5.3) | 74 (6.9) | 94 (23.4) | 375 (67.2) | 334 (73.9) | 258 (62.8) | 30 (23.3) |
| 2 | 16 (1.2) | 12 (1.1) | 24 (6.0) | 23 (4.1) | 33 (7.3) | 2 (0.5) | 11 (8.5) |
| 3 | 9 (0.7) | 7 (0.7) | 15 (3.7) | 36 (6.5) | 4 (0.9) | 5 (1.2) | 4 (3.1) |
| 4 | 1263 (91.4) | 952 (89.0) | 226 (56.4) | 58 (10.4) | 45 (10.0) | 28 (6.8) | 58 (45.0) |
| 5 | 6 (0.4) | 4 (0.4) | 8 (2.0) | 1 (0.2) | 2 (0.4) | 0 (0.0) | 0 (0.0) |
| 6 | 6 (0.4) | 7 (0.7) | 11 (2.7) | 12 (2.2) | 6 (1.3) | 17 (4.1) | 5 (3.9) |
| 7 | 1 (0.1) | 6 (0.6) | 13 (3.2) | 47 (8.4) | 27 (6.0) | 95 (23.1) | 16 (12.4) |
| 8 | 8 (0.6) | 8 (0.7) | 10 (2.5) | 6 (1.1) | 1 (0.2) | 6 (1.5) | 5 (3.9) |

1: 학원, 2: 개인과외, 3:그룹과외, 4:학습지(방문교사), 5: 인터넷(통신), 6: 복지기관, 7: 사설문화센터, 8: 기타. * 사교육 유형별 괄호는 %

사교육을 받는 수단을 보면,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은 60-70%가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어, 수학, 영어는 절반이상이 학습지(방문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몇 가지 인구학적 변인들 중 가정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참고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응답한 항목(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을 교육연수로 환산하여 중졸이하는 7.5년, 고졸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졸은 16년 대학원 졸은 18년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고, 각 인구학적 변인별로 독립변인(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5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사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교육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경제 수준이 높았고, 아버지의 나이는 많고 어머니의 나이는 젊었다.

또한 사교육 과목을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과 예체능과목(음악, 미술, 체육)으로 구분하여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과목이나 예체능과목에 투입되는 시간과 가구의 연간소득이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사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변인들의 차이 ():표준편차

| 변인 | 사교육 경험 | | t값 | |
|-----------------|------------------|------------------|---------------|---------|
| | 있음 | 없음 | | |
| 가구연간소득(만원) | 4635.28(5519.23) | 3662.42(2197.21) | 4.265** | |
| 부모의 교육수준(년) | 부 | 13.76(1.88) | 13.59(2.12) | 1.744 |
| | 모 | 13.76(1.88) | 13.59(2.12) | 1.744 |
| 부모 연령 (출생년도) | 부 | 1970.91(3.97) | 1970.23(4.21) | 3.538** |
| | 모 | 1973.48(3.67) | 1972.78(3.89) | 4.043** |
| 삶의 만족도(응답자) | 2.11(.52) | 2.11(.59) | .114 | |

** : p < .01, * : p < .05

아울러 취학 전 사교육이 취학 후의 학습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사교육 유무에 따라 취학 후의 학습활동이나 학습습관, 주관적으로 평가한 과목별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도 알아보았다. 본 패널 자료에서 이 변인들을 측정된 문항목록과 내용은 표 1에 제시한 바 있고, 취학 전 사교육 유무에 따른 취학 후의 학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t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학습활동’에 포함된 5문항 중 마지막 문항은 응답방향이 나머지와 달라 역 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학습활동에 포함된 5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각각 1차 .473, 2차 .506, 3차 .622로 낮은 편이었다. ‘학습습관’은 초1패널의 3차 조사에만 포함되었으며 학 하위 척도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각각 ‘성취가치’ .875, ‘숙달목적지향성’ .667, ‘행동통제’ .766, ‘학업시간관리’ .84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따라서 ‘학습습관’의 문항들은 합산하여 총점으로 계산하였으나, ‘학습활동’의 5문항들은 총점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문항을 독립된 측정치로 간주하여 개별적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사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학습관련 변인들의 차이. (): 표준편차

| 변인 | 사교육 경험 | | t값 | |
|-------------------|---------|-------------|-------------|----------|
| | 있음 | 없음 | | |
| 학습활동 (1차) | 1 | 1.41(.67) | 1.39(.68) | .428 |
| | 2 | 1.57(.65) | 1.65(.72) | -2.440* |
| | 3 | 1.71(.75) | 1.71(.78) | .089 |
| | 4 | 2.25(1.02) | 2.24(1.03) | .173 |
| | 5 | 1.70(.82) | 1.74(.84) | -1.150 |
| 학습활동 (2차) | 1 | 1.64(.73) | 1.65(.74) | -.422 |
| | 2 | 1.71(.65) | 1.82(.69) | -3.556** |
| | 3 | 1.82(.67) | 1.87(.71) | -1.564 |
| | 4 | 2.11(.88) | 2.14(.88) | -.616 |
| | 5 | 1.92(.78) | 1.98(.81) | -1.381 |
| 학습활동 (3차) | 1 | 1.78(.69) | 1.81(.66) | -.645 |
| | 2 | 1.81(.66) | 1.94(.64) | -4.276** |
| | 3 | 1.88(.59) | 1.96(.59) | -2.982** |
| | 4 | 1.96(.77) | 2.04(.79) | -2.013* |
| | 5 | 2.99(.71) | 2.89(.68) | 3.316** |
| 성적만족도(2차): 5과목 총점 | | 9.75(2.94) | 10.14(3.01) | -2.904** |
| 성적만족도(3차): 9과목 총점 | | 18.45(5.31) | 19.54(4.97) | -4.436** |
| 학습 습관 | 성취가치 | 13.69(3.06) | 13.60(3.19) | .654 |
| | 숙달목적지향성 | 4.54(1.17) | 4.49(1.21) | .809 |
| | 행동통제 | 12.02(1.45) | 11.99(1.47) | .388 |
| | 학업시간관리 | 10.28(2.27) | 10.33(2.34) | -.464 |

**: $p<.01$, *: $p<.05$

1: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나요?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잘 하나요?

3: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나요?

5.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하나요?

‘학습활동’변인에 속하는 문항은 부모가 아닌 초등학생 자신이 응답한 것이다. 1차 및 2차에서는 공통적으로 2번 문항(“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잘 하나요?” - 1:아주 잘 한다, 2:잘 하는 편이다, 3:잘 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만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더 잘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3차에서는 2번 문항 뿐 아니라 3번(“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 1:아주 잘 알고 있다, ~ 4:전혀 모르고 있다), 4번(“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나요?” - 1:항상 물어본다 ~ 4: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5번(“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나요?” - 1: 항상 딴 짓을 한다 ~ 4: 절대 딴 짓을 하지 않는다)

문항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 학습활동에 속하는 문항들에서 더 긍정적인 방향의 응답을 많이 하였다.

한편, 2차(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3차 조사(국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에서만 포함되었던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2차 및 3차 년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취학 후 1-2년 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점: 매우 잘했다 ~ 5점: 매우 못했다). 반면 3차 년도에 포함된 ‘학습습관’과 관련된 4가지 하위 변인에 있어서는 취학 전의 사교육이 있고 없음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취학 전의 사교육 과목과 취학 후의 성적만족도

취학 전에 사교육 과목 별로 투입된 시간(분단위로 환산)과 취학 후 2학년 및 3학년의 각 과목들에 대한 성적 만족도(1: 매우 잘했다 ~ 5:매우 못했다)간에 관계가 있는지, 투입된 시간과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과목별 성적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았다(표7). 먼저 취학 전 과목별 투입된 사교육 시간과 취학 후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 만족도 간에는(예: 국어-국어만족도, 수학-수학 만족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취학 전 과목별 사교육 투입시간과 취학 후 과목별 성적 만족도간의 상관

| | 사교육시간 국어(분) | 사교육시간 수학(분) | 사교육시간영 어(분) | 사교육시간 미술(분) | 사교육시간 음악(분) | 사교육시간 신체(분) |
|--------|----------------|----------------|----------------|----------------|----------------|----------------|
| 국어 | .035 | .022 | -.006 | -.006 | -.033 | .169** |
| 수학 | -.010 | -.067* | -.026 | .077 | -.015 | .053 |
| 바른생활 | .051 | .056 | .093 | .079 | .014 | .056 |
| 슬기로운생활 | .060* | .020 | -.033 | .069 | .020 | .058 |
| 즐거운 생활 | .008 | -.003 | -.047 | .057 | -.019 | .069 |

**: $p < .01$, *: $p < .05$

한편, 과목별로 투입된 사교육 시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각각 국어-수학-영어 과목 간에($r = .161 \sim .679$), 그리고 미술-음악-신체활동($r = .589 \sim .675$) 과목 간에 더 뚜렷하게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사교육 과목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투입된 사교육 시간을 각각 합해 새롭게 두 가지 변수(교과목 사교육-예체능 사교육)를 만든 후, 취학 후의 1학년 때의 학습활동, 취학 후 2학년 때의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결과와 관계가 있는지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다. 그 결과 취학 전 교

과목 사교육에 투입된 시간과 취학 후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의 학습활동(표6 참조)과 취학 후 2학년 3학년 때의 성적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예체능 사교육에 투입된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4. 지역별 관련 요인들

먼저, 지역별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3유형(서울, 광역시, 기타)으로 다시 재분류하여 지역별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2.228$, $df=2$, $p=.892$)

또한 앞서 표 5 에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인구학적 변인들인 부모의 학력, 나이, 가구소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ANOVA) 해 보았다. 그 결과, 연간소득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F(2,2200)=1.514$, $p=.214$], 아버지의 교육년수 [$F(2,2245)=15.008$, $p=.000$]와 어머니의 교육년수 [$F(2,2261)=14.238$,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검증 결과 모두 서울, 광역시, 지방 순으로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지역별 인구학적 변인들의 차이 (): 표준편차

| 변인 | 지역구분 | | | F값 | Scheffe | |
|----------------|----------------------|----------------------|----------------------|-----------------|----------|-------|
| | 서울 ^a | 광역시 ^b | 지방 ^c | | | |
| 가구연간소득(만원) | 4843.64 (2972.18) | 4218.05 (2256.01) | 4344.75 (6031.37) | 1.541 | | |
| 부모의 교육수준(년) | 부 | 14.73 (2.17) | 14.30 (2.08) | 13.99 (2.11) | 15.008** | a>b>c |
| | 모 | 14.24 (2.18) | 13.82 (1.98) | 13.56 (1.89) | 14.238** | a>b>c |
| 부모 연령 | 부 | 43.39(3.79) | 43.33(3.85) | 43.23(4.05) | .236 | |
| | 모 | 42.47(3.83) | 40.60(3.59) | 40.62(3.79) | 5.832** | a>b,c |

**: $p<.01$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유형별로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교육 과목에 투입된 시간을 교과목과 예체능과목으로 이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유형의 사교육에 투입된 시간에 있어서 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교과목 사교육 투입시간: $F(2,1460)=.562$, $p=.570$, 예체능 과목 사교육 투입시간: $F(2,945)=.735$, $p=.480$]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 드러난 결과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의 비율

사교육 현황과 관련된 기술 통계분석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취학 전에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71.1%로, 이전의 회고적 조사방식에 의한 몇몇 연구(강이주, 2007;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이기숙 외, 2002; 김희선, 2006)에서 보고된 비율(70-86.8%)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이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적은 수의 표집을 사용한 조사 결과였다는 점에서 취학 전 사교육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현재도 취학 전 사교육은 여전히 '대세'이며 대도시와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취학 전 사교육 참여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취학 전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예외로 간주되는 상황이며,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대도시와 지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취학 전 사교육은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의 양을 살펴볼 때, 주로 음악, 미술, 신체활동 같은 예체능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취학 전 사교육이 선행학습을 염두에 둔 교과목 위주의 사교육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일 수 있다. 즉, 전체 사교육 내용 중 국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국어보다 음악, 미술, 신체활동과 같은 예체능 과목이 거의 4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직까지는 취학 전 사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으로 확산되어 있지는 않으며 주로 음악, 미술, 신체활동과 같은 취미나 놀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2. 취학 전 사교육의 내용

취학 전에 아동들이 경험하는 사교육의 내용을 보면, 교과목 중에서는 영어나 수학과 같은 과목 보다는 주로 국어(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 형태의 한글교육)에 치중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작 연령(4.76 ± 1.25 세) 역시 다른 과목 보다 가장 빨랐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사교육을 받는 아동중의 거의 60%가 취학 전에 한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취학 전에 이미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의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적어도 한글 교육은 대부분 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사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30% 정도의 아동들(이경선, 김주후, 2010)은, 취학 후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비교되어 글을 읽고 쓰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거나 이후의 학습활동에서도 영향을 받게 될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일종의 선행학습의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조기 언어교육이 취학이후 개인의 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기초적인 한글공부가 된 상태에서 국어 교과를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갈등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다른 모든 교과목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교육을 처음 받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작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측면이다.

이러한 우려는, 사교육경험유무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사교육 경험 유무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모두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연령이 더 젊었고, 연간가구 소득 역시 더 많았다. 다만, 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연간가구소득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교육 참여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교육 참여 유무가 가계소득에 따라 영향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결과로서 소득과 취학 전 사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3.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취학 후의 학습활동과의 관련성

다음은 취학 전의 사교육 경험 유무가 취학 후의 학업성취도나 자신감 및 관련된 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사교육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 보았고,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첫째, 취학 전 사교육 참여경험이 있고 없음에 따라 취학 후 학습활동을 묻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응답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1차년도(초1)와 2차년도(초2)에서는 오직 “학교 숙제는 빠뜨리지 않고 잘 하나요?”에 대한 질문에서 사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보다 더 잘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3차 년도에 이르러서는 1문항을 제외한 4문항에서 모두 차이를 보일 정도로 더 뚜렷해졌다. 한편, 2차와 3차 년도에 응답한 과목별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사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들보다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사전에 학교 공부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여 숙제

관리를 잘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고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는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든, 확인되지 않은 제3의 변인들이 취학 후에도 연관되어 작용했던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론이나 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사교육에 더 참여했던 가정의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가정보다 가계 소득수준이 높고, 이것은 취학 후에도 지적·정서적으로 학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꾸준한 물리적/심리적 지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그 특정한 사교육 내용과 관련된 학습능력 자체를 발달시켰다기 보다는 단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던 것이며, 이것이 본 패널 조사에서의 이러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업성적과 관련된 연구 설문지의 문항들에 대해 아동 자신의 자기보고형 응답의 결과이며, 그 자기 보고 결과는 객관적인 학업성취도의 평가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근거는, 취학 전 각 교과목별로 사교육을 경험한 시간과 취학 후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간의 상관관계 행렬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국어, 영어, 수학에 투입된 사교육 시간과 취학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주관적 성적평가 사이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과목 특정적 사교육은 취학 후 과목 특정적인 지적 발달이나 학습능력에 영향을 준 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학습습관이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에는 유용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학습 습관을 먼저 길러 준다는 점에서는, 취학 전 사교육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다.

4. 지역별 차이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나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서울, 광역시, 지방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 간에는 취학 전 사교육 참여 빈도나 과목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구학적 변인 중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 모두 서울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광역시나 지방의 부모들보다 학력(교육년수)이 높았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사교육 경험의 정도와 소득수준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고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이 지역 간에 그리고 사교육 경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론이나 해석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설문 문항들은 이러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아동발달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추론을 가능케 하려면, 가정환경이나 아동이 사는 지역의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더

포함된 자료와 함께 매개변수들을 동원한 모형검증 연구 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그간 주로 일부 지역이나 기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들에 비해 전국규모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취학 전의 사교육 경험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동일한 대상을 중단 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취학 전의 사교육 경험의 유무나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취학 후의 학습활동과 성적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그 결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이상의 논의에서 개진된 몇 가지 추론들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들을 요한다. 먼저, 설문 조사연구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이러한 결과 및 도출된 시사점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었는지 그 보고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는 ‘학습활동’ 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 산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비록 문항 내용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문항을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성인의 시각으로 이해하여 응답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비록 1년 간격으로 실시되었기에 반복응답으로 인한 연습효과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응답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 자료들(예를 들어, 성적 및 학습관련 변인들)인 경우에는 이전에 응답했던 기억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에 따라 문항이 작성되고 조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설문에 응답한 아동의 보호자들이 문항에 포함된 ‘사교육’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응답했는지 연구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질문과 응답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질문 문항의 내용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명하게 의미를 제시해 준다거나, 응답자들의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과 더불어 아동의 행동양상에 대한 교사의 평가나 성적 점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완 된다면 분석결과에 대해 보다 신뢰로운 추정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설문 문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단 하나의 문항으로 사교육 경험의 유무만을 확인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의 사교육 경향이 영어조기교육이나 선행학습의 요소에서 점차 벗어나 인성이나 창의성 및 예체능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하는 문항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분석에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동시적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다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관련된 변인들을 추가하거나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된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해 보는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이주 (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 활과학회지*, 16(2), 315~331.
- 김민정 (2009). *조기영어 사교육 경험이 중학생의 듣기, 읽기 능력과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림 (2007). *유아 조기·특기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남, 이병환 (2014). *사교육 발생구조 탐색*. 열린교육연구, 22(1), 41-63.
-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1997). 사교육비 해소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 행정학연구*, 19(3), 149~180.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 여부 및 비용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15(3), 67~85.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
- 김지하, 백일수 (2006). 외국의 사교육 현상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학 연구*, 14(3), 131~160.
- 김희선 (2006). *유아기 학부모의 교육수요 및 경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 박보경, 김수진, 조숙인 (2009).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30(4), 135~153.
- 류충희 (2008). *조기영어교육 실태에 따른 학습성취도, 학부모의 흥미도 및 만족도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진 (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 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연, 이숙현, 백진아 (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0(1), 157~179.

- 서금택 (2004). *유아 사교육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문희, 양미선 (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 서미옥 (2004). 온라인 토론방 매체를 통한 조기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열린유아교육*, 9(1), 87~104.
- 서현화, 최미현, 좌승화, 천희영 (2003). 취학전 영어교육 맥락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영어 유창성 간의 관계. *외국어 교육*, 10(2), 85-106.
- 신의진 (2002). 조기교육과 발달병리적 문제: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9~42.
- 우남희 (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과 권리*, 8(2), 189~207.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이경선, 김주후 (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경아 (2003). *조기영어 사교육이 중학교 1학년 최초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 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명순 (2007). 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4), 157~181.
- 이부미, 이수정 (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85~107.
- 이정원 (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12), 29~55.
- 이필남, 신인수, 장환영 (2017). 한국의 사교육비와 관련 요인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비교교육 연구*, 27(2), 53-79.
- 최지영 (2008).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189-214.
- 통계청 (2013). *2012년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한수미 (2009). *유아의 방과 후 사교육 경험 및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유미 (2010).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 신념이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81~90.

- 한지혜 (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황혜신 (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22, 69~85.
- 홍성우 (2009). *우리나라 가계부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은자 (2001).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 록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실태와 취학 후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중인 2010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1학년 패널자료에 포함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 234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취학 전 사교육 실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중 71.1%가 취학 전에 사교육을 경험하였고, 사교육 시작연령은 4.76세(국어)에서 5.63세(음악)범위였으며, 과목별로는 국어(58.1%)에서 수학(5.5%)순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취학 전 사교육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가정의 연간소득, 부모의 연령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취학 후의 학습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집단이 학습습관 및 흥미와 관련된 일부 변인, 그리고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 응답한 과목별 성적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취학 전 사교육의 구체적인 과목별 상관분석 결과 취학 전에 어떤 과목의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 취학 후의 구체적인 성적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정도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된 논의를 개진하였다.

교신저자: 정승아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Email: jsa@chosun.ac.kr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5일